

#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正體性 및 體系書誌的 分析

## A Research on the Identity and a Systematic Bibliographical Analysis of Sinpyeon Jejonggyojang Chongnok

金 聖 洙 (Kim, Sung-Soo)\*

### ◁ 목 차 ▷

- |                      |                                  |
|----------------------|----------------------------------|
| 1. 緒 論               | 3.2 「敎藏總錄」‘目’의 章疏名에 따른<br>형태적 분류 |
| 2. 「敎藏總錄」의 正體性       |                                  |
| 3. 「敎藏總錄」의 體系書誌的 分析  | 4. 結 論                           |
| 3.1 「敎藏總錄」卷第1'의 分類體系 | <참고문헌>                           |

### <초 록>

이 논문은 「敎藏總錄」의 正體性 및 體系書誌的 分析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제2장 「敎藏總錄」의 정체성에서는, 이 목록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특성을 導出하여 그 正體性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교장총록」에는 '① 章疏의 正藏에 관한 補贖(連續)性 및 傳來性(保存性), ② 章疏收集의 持續性과 國際性 및 網羅性, ③ 章疏의 選別性 및 外護性, ④ 章疏와 「교장총록」의 開放性 및 累加性(蓄積性), ⑤ 章疏의 歷史性 및 通時性, ⑥ 饒益衆生의 思想性(衆生救濟의 念願性), ⑦ 「교장총록」의 分類體系에 관한 義天 教學觀(敎相判釋)의 根據性, ⑧ 諸宗教學의 兼學思想, ⑨ 諸宗教藏(續藏) 雕造의 完結性' 등의 正體性이 溶解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제3장 「교장총록」의 체계서지적 분석에서는 이 目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교장총록」의 제1차적인 分類인 '類' 단위의 分類은 '義天의 教學觀'에 立脚한 해당 經論名의 群集別 配置에 의한 順序로 安排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교장총록」의 분류체계에는 一定한 準則이 있고 論理的이고 合理的인 卓越性을 보임'을 立證하였다. ② 「교장총록」에서 '目' 단위의 분류는, 이른바 '敎學的인 解釋의 意味가 包括的으로 큰 順序로 列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要語: 「新編諸宗教藏總錄」, 「敎藏總錄」, 正體性, 分類體系, 體系書誌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 접수일: 2017년 3월 6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identity and a systematic bibliographical analysis of *Gyojank Chongno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hapter 2, The identity of *Gyojank Chongnok*, by figuring out several characteristics implied in this Bibliography, its identity was well grasped. As a result, it was understood that in *Gyojank Chongnok* there were integrated identities such as '① continuation and preservation of authentic scriptures represented in scriptural explanations (章疏), ② durability, international coverage and comprehensiveness of collected scriptural explanations, ③ selectiveness and external protection of scriptural explanations, ④ openness and accumulation of scriptural explanations and *Gyojank Chongnok*, ⑤ historical value and diachrony of scriptural explanations, ⑥ prayer for saving people, ⑦ authority of Uicheon's philosophy of theoretical teaching about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Gyojank Chongnok*, ⑧ ideology of learning simultaneously various thoughts represented in the science of pan-Buddhisms, ⑨ completeness of producing the pan-Buddhistic scriptures'.

Second, in Chapter 3, 'A Systematic Bibliographical Analysis of *Gyojank Chongnok*,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this Bibliography was examined. As a result, ① it was found that 'Class (類)' which is the first classificatory hierarchy of *Gyojank Chongnok* reflects the group arrangement of Buddhistic scriptural names based on Uicheon's philosophy of theoretical teaching. Therefore, it is evidenced that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Gyojank Chongnok* follows certain rules and shows logical and theoretical excellence. ② It is certain that in *Gyojank Chongnok*, the classification of 'Subclass (目)' was arranged in the order of 'the meaning of interpreting the philosophy of theoretical teaching'.

Key words: *Sinpyeon Jejonggyojang Chongnok* (『新編諸宗教藏總錄』),  
*Gyojang Chongnok* (『教藏總錄』), Identities, Classification Scheme,  
Systematic Bibliography

## 1. 緒 論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敎藏總錄」이라 약칭함)은 世界最初(嚆矢)의 章疏<sup>1)</sup>目錄으로, 鎮兵大藏經<sup>2)</sup>(高麗 初雕大藏經)을 補贖하는 諸宗教藏(續藏經)을 간행하는데 基盤을 이룬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교장총록」과 諸宗教藏에 대하여, 그 동안 필자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sup>3)</sup> 이들 연구에서는, 「교장총록」은 義天의 敎學觀에 입각한 一定한 準則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조직된 分類體系 위에서 편성된 탁월한 목록임<sup>4)</sup>을 규명한 것을 비롯하여, 「敎藏總錄」의 著錄 및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와 그 「編成의 思想的 背景」 및 「體系性과 國際性」 등등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大覺國師 義天과 관련한 史料는 「大覺國師文集」을 비롯하여 각종 文集과 書信 및 碑文類 등 여러 記錄들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이에 本考에서는 大覺國師의 信念과 思想 등을 直接的으로 가장 잘 立證할 수 있는 「義天 관련 1차자료(記錄史料)」에 근거하여 「교장총

- 1) 大藏經(經·律·論 三藏에 관한 전체 佛典: 正藏)에 대한 개개 研究 著書와 論文[註釋書 等]들에 대한 總稱함.
- 2) 13세기에 고려 再雕大藏經(팔만대장경)을 雕造한 이후인 1255년에, 「高宗은 初雕大藏經에 대하여 “鎮兵大藏經(전쟁(兵)을 진압(鎭)한 대장경)”이라 지칭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高麗史」 제129권, 열전 제42, 崔忠獻條」 속에 기록되어 있는 「[崔沆에게 내리는] 詔書」에 의거하면, “[高宗] 41년(1254: 甲寅)에 … 明年(1255)에 「[최항에게 내리는] 詔書」에서 말하기를 … “… 歷代로 내려오던 鎮兵大藏經이 몽고의 군사(狄兵)에 의하여 모두 불타 버리고 …”라 하였다. 이로 보아 高宗을 비롯한 13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초조대장경을 「鎮兵大藏經」이라고 命名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5-96. 參照).
- 3) ①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12). ② 김성수, “敎藏總錄 經部 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 제10輯(1983), 121-148. ③ 김성수, “高麗續藏經 目錄 編成의 사상적 배경,” 「인문과학논총」 제6집(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7. 12), 215-235. ④ 김성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著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7. 7), 1-22. ⑤ 김성수,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2011. 12), 7-63. ⑥ 김성수, “의친,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체계성과 국제성,”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일시: 2013년 3월 28일(목) 오후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세미나룸. 주최: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33-56. ⑦ 김성수, “의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55-89. ⑧ 김성수,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 및 의친의 시대정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65-99. ⑨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 찬술 배경과 서지기술 및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新編諸宗教藏總錄」總覽의 基礎」(〈고려 제종교장 학술조사 4차 보고회〉: 일시: 2016.6.11.(토), 장소: 책박물관 고반재(경남 함양군 안의면), 21-38(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6집(2016. 6), 75-101.).
- 4) 「敎藏總錄」의 分類體系는, 즉 각 「교장총록」에 기입된 佛典 排列의 순서는 여러 敎相判釋의 逆順과 상관성이 깊으며, 이는 또한 「義天의 敎學觀」이라 할 수 있는 「圓融의 門, 終頓의 旨, 始敎의 宗, 小乘의 說」 등의 순서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의친의 교학관」에 입각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一定한 準則에 의하여 論理的이고 合理的으로 조직된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논술하였다.

록」撰述의 特性 및 이 목록의 體系書誌의 측면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서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함과 동시에 그 正體性을 導出해 보고자 한다.

## 2. 「敎藏總錄」의 正體性

「敎藏總錄」은 大覺國師 義天이 1,090년(宣宗 7)에 손수 撰述(編成)한 章疏目錄이다. 의천은 고려(신라 포함)를 비롯한 중국(唐·宋) 및 遼나라와 日本 등 동아시아 전체에 散在하여 있는 章疏들을 收集하고, 수집된 모든 章疏들을 각 經論別로 體系化시켜 群集化함으로써 「교장총록」을 편성하였고, 대장경 三藏을 補續하는 이른바 「第4藏」<sup>5)</sup>으로서의 「諸宗教藏(續藏)」을 一藏으로 완성하여 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章에서는, 義天의 發願과 努力의 흔적이 담겨 있는 記錄(一次資料)에 立脚하여 「교장총록」이라는 목록이 內包하고 있는 여러 特性<sup>6)</sup>들을 導出하여 봄으로써, 「敎藏總錄」의 正體性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sup>7)</sup>

첫째, 「교장총록」의 특성은, 義天 자신이 이 목록을 撰述한 뒤 그 所懷를 직접 기록한 序文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의천은 〈「新編諸宗教藏總錄」序(1090)〉에서

..... / 나[義天]는 일찍이 ① 「經論[大藏經]을 갖추었다<sup>8)</sup> 하더라도 章疏가 없으면 [대장경, 즉 불교를] 流通시킬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② 昇公[智昇] 護法の 뜻을 본받아, 敎迹[章疏]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

이제 그동안 수집한 바, ③ 諸宗에서 찬술한 新舊의 章疏들을 감히 私的으로 秘藏할 수 없기에 모두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④ 뒤에 다시 얻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록할 생각이 다. ⑤ 앞으로 編次와 函秩이 三藏의 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해진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때는 後高麗 13代 임금님이 즉위하신 지 8년째 되는 更午年(1090) 8월 초과일에 海東傳華嚴大敎沙門 某[義天]가 짓다.<sup>9)</sup>

라 하였다.<sup>10)</sup> 여기에서 ① “나[義天]는 일찍이 「經論[大藏經]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章疏가 없으면

5) 서진수, 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64.

6) 여기서의 「特性」의 개념은 特質과 屬性 및 特徵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7) 本章의 연구방법은, 그 편의상 「大覺國師文集」 등 一次資料(史料)에서 時代順의 逆順으로 검색하여, 義天의 章疏收集과 「敎藏總錄」의 編成 및 諸宗教藏의 刊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記錄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면서, 「교장총록」의 正體性(identity)을 考究하고자 한다.

8) 高麗 鎮兵大藏經, 즉 初雕大藏經을 일컫음.

9)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62-63.

10) 우리는 위 인용문에서, 義天은 佛教의 中國傳來 時期부터 經論의 번역 및 佛典目錄의 등장과 번역된 각

[대장경, 즉 불교를] 流通시킬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라고 한 대목에서 우리는, '章疏는 심오한 大藏經(正藏)의 내용을 풀어서 해설하고 보완하며 이어주는 이른바 '補續性'을 지니고 있음'을 認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목은 「교장총록」 찬술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개 '章疏의 正藏에 관한 補續性'이라는 특성을 밝혀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② “昇公[智昇] 護法の 뜻을 본받아, 敎迹[章疏]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義天]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라고 한 대목에서 우리는, 의천은 '智昇의 護法情神'을 계승하여 〈代世子集敎藏發願疏〉<sup>11)</sup>를 올리 기 이전인 16세 때부터 章疏蒐集의 念願을 가슴에 품고 그 收集을 직접 實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장총록」에 編入된 章疏들은, 의천이 2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한 '章疏收集의 持續性'에 의한 產物이라는 屬性을 확인할 수 있다. ③ “諸宗에서 찬술한 新舊의 章疏들을 감히 私的으로 秘藏할 수 없기에 모두 정리해서 公開하기로 하였다”라고 한 대목에서 우리는, 이른바 '章疏의 公開性'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義天은 그가 열람하거나 수집한 모든 章疏를 무조건 「교장총록」에 편입시킨 것은 아니다. 그 극단적인 事例로, 고려 초기 均如大師의 저술 및 章疏들은 단 한편도 「교장총록」에 채택되지 않았음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다.<sup>12)</sup> 여기에서 우리는 「교장총록」에 編入된 '章疏의 選別性'도 아울러 認知할 수 있다. ④ “뒤에 다시 얻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록할 생각이다”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敎藏總錄」 목록의 성격이 固定되거나 閉鎖的인 것이 아닌 이른바 '開放型 目錄'임을 直感하게 한다. 그리하여 「교장총록」 목록에는 아예 函次名'이 부여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 記入조차 試圖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교장총록」의 開放性'에 基因함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교장총록」은 '章疏의 지속적인 累加性 및 蓄積性'을 전제로 한 개방형 목록임을 알 수 있게 하여준다. ⑤ “앞으로 編次와 函秩이 三藏의 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해진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의천은

佛典의 混同과 「開元釋教錄」의 완성 등 中國佛教史를 완전히 꿰뚫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1) 의천은 19세(1073) 때 〈代世子集敎藏發願疏〉를 왕에게 올린 바 있다.

12) 義天은 〈「新集國宗文類」序〉에서 華嚴學에 대하여, '중국 화엄종의 初祖인 杜順, 第2祖 智儼, 第3祖 賢首法藏, 第4祖 清涼澄觀을 드며, 특히 지엄과 법장과 징관 三家의 義疏(章疏)를 표준으로 삼으면서, 諸家의 해설을 참고로 보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海東(高麗)에서는 義湘大師(浮石尊者: 625-702) 이후 圓頓之敎(華嚴의 가르침)가 400여 년이나 지속되었음'을 언급한 후, “그리고 諸宗의 義學(敎義의 학설)에 대해서도 미상불 논의하며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敎理가 심오하고 經籍이 방대한 까닭에 問答할 즈음에 援引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더구나 근세에 吾宗(華嚴宗)에서도 奇異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아 근거도 없이 분분하게 우겨대는 바람에, 마침내 祖師의 玄旨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한 것이 열에 예닐곱이나 되니, 敎觀에 정통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義天, “新集國宗文類」序, “大覺國師文集」卷第 1,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59-61.)”라 하여, '均如의 奇異(神異)의인 華嚴學'을 통탄하고 있다. 이에 따라, 「敎藏總錄」의 編入에 均如의 章疏들은 모두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장총록』을 찬술하면서 ‘이 目錄과 諸宗教藏이 三藏의 正文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전해짐으로써 佛法의 弘布를 念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여기에서, 義天은 『교장총록』과 여기에 편입된 章疏들의 무궁한 ‘傳來性’을 祈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위의 〈『新編諸宗教藏總錄』序〉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義天이 20년 이상 章疏의 收集에 盡力을 다하고, 章疏의 수집을 畢生의 宿願事業으로 盟誓한 사항은, 의천의 나이 19세 때 發願한 〈代世子集教藏發願疏(年十九作)<sup>13)</sup>〉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 그러나 [①] 正法이 내려오면서 쇠퇴해지고 기원이 점차로 둔해졌으므로 四依菩薩이 이따금씩 나와 疏(章疏)를 지어 發揚하는가 하면, 삼장법사가 또 걸출하게 나와서 鈔를 펼쳐서 輔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遺文이 번창하여 퍼지면서 온 세상을 받들어 행하게 되었으니, 실로 한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마쳤다고 말할 만합니다. …

돌아보건대, 이 桑木(東邦)의 구역은 평소에 竺乾(西域)의 교화를 우러렀는데, 經論(鎮兵大藏經)은 갖추었으나 疏鈔(章疏)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②] 古今에 걸쳐 遼나라와 宋나라에 있는 百家의 科教를 一藏으로 모아 유통시킴으로써 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여 샅된 그물의 매듭을 풀어버리고, [③] 像法을 다시 일으켜 국가를 널리 이롭게 함은 물론, 恒沙와 같은 세계의 群生 모두에게 金剛의 善한 씨앗을 뿌리고, 다함께 보현보살의 道를 배워 길이 노사나불의 이상향에서 노닐게 하고자 합니다.<sup>14)</sup>

라 하였다. 즉 義天은 1073년 당시 高麗에서 經論[鎮兵大藏經]은 갖추었으나, 불교의 연구와 수행에는 부족하기만 한 章疏(疏鈔)들에 대하여, ‘古今에 걸쳐 宋나라와 遼나라에 있는 百家의 科教(章疏)들을 一藏으로 모아 유통시킴으로써 국가를 이롭게 하고 群生들에게 善한 씨앗을 뿌리겠다’는 크나 큰 發願을 盟誓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① “正法이 내려오면서 쇠퇴해지고 기원이 점차로 둔해졌으므로 四依菩薩이 이따금씩 나와 疏(章疏)를 지어 發揚하는가 하면, 삼장법사가 또 걸출하게 나와서 鈔(章疏)를 펼쳐서 輔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遺文이 번창하여 퍼지면서 온 세상을 받들어 행하게 되었으니”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義天은 각종 ‘疏鈔(章疏)의 성격과 重要性’을 看破하고, 章疏의 流通과 學習이야말로 쇠퇴하여진 正法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古今에 걸쳐 遼나라와 宋나라에 있는 百家의 科教를 一藏으로 모아 유통시킴으로써 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여 샅된 그물의 매듭을 풀어버리고”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부족한 章疏를 高麗(新羅 포함)는 물론 宋·遼·日本 等地의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걸쳐 古今의 章疏들을 모두 收集하여 一藏으로 모아 유통시키겠다는 의천의 발원에서, 章疏收集에 관한 ‘國際性, 網羅性, 歷史性 및 通時性’을 企圖하는 義天의 念願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실제로 의천은 宋나라를 다녀오면서

13) 의천의 나이 19세이면 1073년(文宗 27: 癸丑) 무렵이다.

14) 義天, “代世子集教藏發願疏(年十九作),” 『大覺國師文集』 卷第14,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285-287.

‘諸宗의 敎藏(章疏) 3,000여 권’을 수집하여 돌아왔고,<sup>16)</sup> 근래에 박용진 교수의 노력으로, 『교장총록』에 編入된 章疏의 摠部·卷數를 精密調査한 결과, 『교장총록』上·中·下卷에 수록된 章疏의 部數와 卷首는 ‘摠 1,010部 4,865卷’으로 集計되었다.<sup>17)</sup> 이로써 義天의 이른바 ‘東西(海東과 中國(唐宋·遼)古今을 망라한 章疏收集의 念願’은 드디어 國際的이고 網羅的이며 歷史性과 通時性을 동시에 갖춘 『교장총록』의 編成으로 일단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像法을 다시 일으켜 국가를 널리 이롭게 함은 물론, 恒沙와 같은 세계의 群生 모두에게 金剛의 善한 씨앗을 뿌리고, 다함께 보현보살의 道를 배워 길이 노사나불의 이상향에서 노닐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義天의 章疏收集 및 諸宗教藏의 완성에 대한 염원은 佛法의 弘布를 통하여 고려의 국민뿐만 아니라 ‘沙界<sup>18)</sup>(世界)의 群生’, 즉 세계의 모든 사람(衆生)들을 넉넉하고 利益하게 함이라는 ‘饒益衆生의 思想’을 지니고 위의 發願文을 작성하였음을 특히 注目할 수 있다.<sup>19)</sup>

셋째, 의천은 〈宣宗을 대신하여 諸宗의 敎藏을 刊行하며 지은 글(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sup>20)</sup>에서

… 右(義天)는 삼가 아뢰니다. …

대저 [①] 부처가 설한 것이 經이요, 經에서 나온 것이 論이니, 經은 論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論은 疏를 기다려서 풀리고, 疏는 義를 모아 밝혀지며, 義는 師를 통해서 서술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어서 부처의 진리를 풀어내는(紬繹) 사람들이 대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②] 智者(天台智顗: 天台宗)가 天台山에서 宗旨를 수립하고, 遠公(慧遠)<sup>21)</sup>이 정영사에

15) 게다가 金富軾 지은 『靈通寺 大覺國師 碑文』에서, “… 태만하여 講論을 하지 않으므로 公私 간에 經籍이 거의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마침내 巨金을 들여 宋과 契丹(遼)과 日本에서 책을 구입하였다. 또 辛未年(1091, 宣宗 8) 봄에는 남쪽 지방에 내려가 [章疏를] 수색하여 얻은 책이 무려 ‘4천 권’이나 되었는데, 먼지가 끼고 종이 썩어 책장이 떨어진 것들을 모두 수습하여 상자에 넣어 가지고 돌아왔다(… 怠不講故 官勝私褚 亡散幾盡 遂重購求書於中國 以及契丹日本 又於辛未春 南遊搜索所得書無慮四千卷 … 俱收並拾 包匭以歸 …)”라 하였다. 이로 보아 의천은 『교장총록』을 편성(1090)한 이후인, 諸宗教藏의 간행을 위한 敎藏都監을 설치하고 木板雕造에 돌입하였을 당시인, 1091년에도 [지금의 경상도 지역 등] 南遊하면서 章疏의 收集을 계속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16) 義天, [“至本國境上乞罪表.”], 『大覺國師文集』 卷第8,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176-177. 참고.

17) 박용진, “고려시대 敎藏의 간행과 流轉 및 그 의의,” 『初雕大藏經과 東亞細亞의 大藏經』(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2.12.9.,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1층 회의실), 183, 179-238.

18) 沙界: ‘恒河(갠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가리킨다.

19) 義天의 饒益衆生 사상은 ‘弘益人間’의 이념(이데아)으로도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 이 글은, 義天이 『교장총록』을 찬술한 1090년 이후에 諸宗教藏을 木板으로 雕造하면서 올린 疏이기 때문에, ‘1090년 8월 8일 이후의 當該年度 그 어느 時點’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1) 慧遠(523-592): 577년 北周의 武帝가 불교를 폐지하라는 명령에 그 옳지 못함을 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隨 文帝가 중국을 통일하고 불교를 再興할 때, 혜원을 위하여 정영사를 짓고, 강설하는 法席을

서 가르침을 내릴 수 있었으며, 慈恩(窺基)과 安國(李涉)이 衆說을 三時[敎判]로 종합하고,<sup>22)</sup> 賢首(法藏)와 淸涼(澄觀)이 異端을 五敎로 회통시킬 수 있었습니다.<sup>23)</sup> 그리고 南山의 行事와 東塔의 開宗 등이 나왔는가 하면,<sup>24)</sup> 후대에 諸家에 미치는 거의 百氏[百家]를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元聖(元曉)으로부터 보잘 것 없는 이 몸에 이르기까지 衆善을 돈독히 하여 국가를 보전하였고 至仁에 의지하여 만물을 육성하였습니다. 顯祖(顯宗)께서는 5천 軸의 秘藏을 새기셨고, 文考(文宗)께서는 10만 송의 契經을 새기셨습니다. [③] 그리하여 正文(大藏經)은 원근에 퍼지게 되었으나, 章疏는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널리 외호하는 데에 뜻을 둔다면 ... (이하 결락) ...<sup>25)</sup>

라 하였다. 여기서 義天은, ① “부처가 설한 經에서 論이 나왔으며, 經은 論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난다. 그런데 論은 疏를 기다려서 뚫리고, 疏는 義를 모아 밝혀지며, 義는 師(스승: 賢哲)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와 뜻이 서술된다.”<sup>26)</sup> 라고 하였다. 이른바 義天의 章疏에 관한 觀點은 이른바 ‘經 ⇒ 論 ⇒ 疏 ⇒ 義 ⇒ 師[의 講義 등]’의 순서로 ‘佛經의 심오한 뜻이 論을 통하여 드러나고, 疏를 통해서 뚫리고, 義를 통하여 밝혀지고, 스승(師)을 통하여 서술됨’으로써 佛敎의 올바른 이해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義天은 이미 16세(1070)<sup>27)</sup> 무렵부터 ‘章疏의 가치와 그 收集의 絶對의 必要性 및 當爲性’을 切感하고, 19세 때에 <代世子集敎藏發願疏>를 올린 근본적인 이유 및 그 실천에 대한 이론적인 基盤(基底)을 認知할 수 있다. ② “智者가 宗旨를 수립하고, 遠公이 가르침을 내리며, 慈恩이 衆說을 三時로 종합하고, 賢首法藏과 淸涼澄觀이 異端을 五敎로 會通시켰으며, 南山의 行事와 東塔의 開宗 등이 나와, 後代에는 百家를 채웠다”라고

열게 하는 등 후히 대접함으로써 天下의 六大德 중의 한사람이 되었다. 『華嚴疏』 7권, 『大乘義章』 14권, 『無量壽經疏』 2권 등등의 저술을 남겼다.

22) 窺基와 李涉은 모두 玄奘의 제자이다. 三時敎判은 法相宗의 敎相判釋이다.

23) 중국 華嚴宗의 ‘五敎十宗敎判’을 지칭하고 있다.

24) 唐나라 律僧인 終南山의 道宣이 『四分律行事鈔』를 짓고, 그의 제자 제자인 長安 崇福寺 東塔의 懷素가 『四分律開宗記』를 지은 것을 말한다. 각각 南山律宗과 東塔律宗이라고 칭하며, 회소의 저술을 新疏라고 부른다(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06.).

25) 義天, “代宣王諸宗敎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5,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00-301. 이상헌 선생이 번역한 『대각국사집』의 내용은 그 原文을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 번역이 탁월하므로, 그 漢文의 原文을 별도로 付記하지 않음. 이하 이상헌 선생이 번역한 자료는 모두 그 原文의 漢文 제시를 생략함.

26) 이는, ‘世尊이 설한 經典의 심오한 뜻은 결국에는 스승(師: 賢哲)들이 풀어내는(紬釋) 章疏(義疏) 등에 의하여 뚫리고 밝혀지고 서술된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綺羅星 같은 法師들이 등장하여 天台宗 法相宗 華嚴宗(法性宗) 律宗 등등의 敎相判釋에 입각하여 經論을 回通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27) 왜냐하면, 義天은 <『新編諸宗敎藏總錄』 序(1090)>에서, “昇公[智昇] 護法の 뜻을 본받아, 敎迹[章疏]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義天은 中國佛教를 諸宗佛教(宗派佛教)로 보고 이를 완전하게 把握하여 歸國하였으며,<sup>28)</sup> 이에 따라 ‘諸宗의 教藏(章疏)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諸宗(各 宗派)의 教相判釋에 立脚하여야만 비로소 모든 章疏를 分類하고 온전하게 理解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을 것이 自明하다. 또한 의천이 章疏目錄을 編成하고 그 제목을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 命名하면서 ‘諸宗教藏’이라 하여 ‘諸宗’을 浮刻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천이 「교장총록」을 編成(撰述)하면서 諸章疏의 分類體系를 수립할 때에도, 또한 諸宗派의 教相判釋을 綜合한 의천 나름대로의 敎學觀에 입각하여 그 분류체계를 완성하였을 것이라는 根據(基底)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장총록」의 分類體系에 대한 ‘教相判釋의 根據性’을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③ “그리하여 正文(大藏經)은 원근에 퍼지게 되었으나, 章疏는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널리 외호하는 데에 뜻을 둔다면 …”이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고려에서는 비록 ‘대장경의 正文은 완비되어 소통되고 있으나 章疏는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른바 ‘章疏의 부족을 哀痛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는 이와 같이 석가모니의 가르침(佛教)에 대한 古今의 賢哲들이 註釋한 章疏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의천 당시 ‘章疏의 수집과 그 학습’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였기 때문에, 의천은 16세 무렵부터 ‘諸宗教藏의 結集과 「教藏總錄」 編撰의 必要性’을 豫感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위의 대목에서, 장차 收集될 ‘章疏의 保存性 및 外護性’에 관한 의천의 강력한 意志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이 義天의 諸宗教藏의 章疏들을 教相判釋 綜合의 逆順에 입각하여 그 分類體系를 수립하면서, 동시에 ‘諸宗의 兼學’ 思想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刊定成唯識論單科 序〉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 그런데 내 생각에 [①] 起身(「大乘起信論」)과 唯識(「成唯識論」) 두 論이야말로 法性和 法相 兩宗의 樞要인 만큼, 학인들은 응당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내가 五教<sup>29)</sup>를 窮究해 보고 싶기

28) 왜냐하면, 義天이 “중국(宋)에서 歸國할 무렵에 그 主客(楊傑)이 禪宗과 教宗의 諸公에게 이르기를, ‘예로부터 바다를 건너 求法한 聖賢이 많이 있지만, 어찌 僧統[義天]이 한 번 중국에 와서 天台·賢首(華嚴)·南山(律宗)·慈恩(법상종)·曹溪(禪宗)·西天梵學 등을 한꺼번에 전해 받은 것과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法을 弘布하는 大菩薩의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는 사실 그대로 표현한 말일 뿐, 결코 지나치게 칭찬한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김부식, “영통사 대각국사 비문,” 『대각국사외집』 제12권,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721, 726.)”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천은 중국방문 중 중국불교를 宗派佛教로 보고, 이에 각 宗派別 巨頭들을 거의 모두 직접 만나고 토론하면서 해당 종파불교의 철저한 이해와 각 종파와 관련된 章疏의 收集에도 盡力を 다한 결과, 위와 같은 ‘楊傑의 致辭’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兼學하려는 것이다. … 더군다나 淸涼[澄觀]이 “性(法性宗)과 相(法相宗)은 하늘의 日月과 같고 『周易』의 乾坤과 같으니, 이 두 부분을 兼學해야만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음이겠는가.

이를 통해서 [②] 『俱舍論』을 배우지 않으면 小乘[敎]의 說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唯識論』을 배우지 않고서 어찌 [大乘]始敎의 宗[旨]을 알겠으며, 『大乘]起信論』을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終頓의 [宗]旨을 알겠는가. 그리고 華嚴[經]을 배우지 않으면 圓融[한 圓敎]의 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참으로 알은 것으로는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하지만, 깊은 것은 분명히 알은 것을 겸할 수 있으니, 이는 理數로 볼 때 당연한 일이다(是知不學俱舍不知小乘之說, 不學唯識 寧見始敎之宗, 不學起信 豈明終頓之旨, 不學華嚴 難入圓融之門. 良以淺不至深 深必該減[淺],<sup>30)</sup> 理數之然也). …<sup>31)</sup>

라 하였다. 여기에서 義天은, ① “起身(『大乘起信論』)과 唯識(『成唯識論』) 두 論은 法性和 法相兩宗의 樞要인 만큼, 學人들은 응당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내가 五敎를 窮究해 보고 싶기 때문에 兼學하려는 것이다. … 淸涼[澄觀]이 ‘性(法性宗)과 相(法相宗)을 兼學해야만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음이겠는가.”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義天은 法性宗과 法相宗 등 ‘諸宗의 兼學’ 및 五敎[賢首敎判, 즉 敎相判釋]의 연구를 重視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義天이 東亞細亞 전체 國家들에 散在하여 있는 章疏들을 網羅的으로 收集하고, 『교장총록』을 찬술한 배경에는 ‘諸宗教學의 兼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32)</sup> 따라서 義天이 20여 년에 걸쳐 章疏를 수집하고 『교장총록』을 편성한 궁극적 意圖에서 우리는 ‘諸宗教學의 兼學性’이라는 正體性을 도출하여 볼 수 있다. ② 위의 인용문에서 義天은 “『俱舍論』을 배우지 않으면 ‘小乘[敎]의 說’을 알 수 없고, 『唯識論』을 배우지 않고서 어찌 ‘[大乘]始敎의 宗[旨]’을 알겠으며, 『大乘]起信論』을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終頓의 [宗]旨’을 알겠는가, 그리고 『華嚴[經]』을 배우지 않으면 圓融[한 圓敎]의 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sup>33)</sup>라 하였다.<sup>34)</sup> 바로 이 부분은 ‘義天의 敎學觀(思想)’이라 할 수 있는 ‘小乘의 說’ ⇒ ‘始敎의

29) 五敎: 華嚴宗의 敎相判釋(賢首法藏의 五敎判): ①小乘敎(『阿含經』 등), ②大乘始敎(『般若經』 등 空始敎, 『解深密經』 등 相始敎), ③大乘終敎(『楞伽經』, 『大乘起信論』 등), ④頓敎(『維摩經』 등), ⑤圓敎(『華嚴經』, 『法華經』 등).

30) ‘減’은 ‘淺’의 誤記로 보아야 할 것이다.

31) 義天, “刊定成唯識論單科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65-66.

32)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 찬술 배경과 서지기술 및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新編諸宗教藏總錄』 總覽의 基礎, (<고려 제종교장 학술조사 4차 보고회>: 일시: 2016.6.11.(토), 장소: 책박물관 고반재(경남 함양군 안의면), 26-27, 21-38.

33) 이 내용은 ‘賢首法藏의 五敎判’ 등에 근거·입각하여 논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연못 물’이나 ‘二乘(聲聞乘, 緣覺乘: 小乘)’에 비유되는 小乘의 핵심 論書인 『俱舍論』을 거론하면서 그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天台智者(538-597)는 소승의 대표 경전인 ‘아함경’을 ‘漸敎’ 및 ‘藏敎’에 소속시키기도 하였다). ②‘大乘始敎’의 대표 논서인 『唯識論』을 들면서 그 宗旨을 배울 것을 권유하고 있다(大乘始敎는 相始敎

宗' ⇒ '終頓의 旨' ⇒ '圓融의 門'으로 나아가는 여러 '敎相判釋의 綜合的 見解의 逆順'에 입각하여 「교장총록」의 분류체계가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다섯째, 義天은 〈內侍 文冠에게 주는 글(與內侍文冠書)〉에서,

... 나는 ... 숙세의 인연에 힘입어, 16-7세 무렵부터 西方 聖人(佛陀)의 가르침에 종사하여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釋氏(佛陀)의 敎法 중에 중국에 유통된 것이 백에 한둘도 아니 되지만, [①] 지금 전하는 三藏의 正文(大藏經)이 거의 6, 7천 권에 이르고, 그밖에 古今 賢哲이 註疏(章疏)를 낸 것이 1천년 동안 없지 않아서 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출중한 재능의 소유자(上根機)'<sup>36)</sup>라 하더라도 몸을 마치도록 그 업을 다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데, 더구나 中根과 下根의 사람이야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내가 ... 왕년에 道를重히 여기고 生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국에 건너갔는데, 그 뜻이 어디 있었느냐면 바로 聖人(佛陀)의 用心을 본받고자 함이었습니다. ...

... 이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②] 五乘<sup>37)</sup>의 가르침 속에 대략적인 요체(大端)가 들어있으니, 불교를 배우는 자라면 未來際를 다하도록 여기에 마음을 기울여야만(用心) 하겠습니까. ... 그리하여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은덕에 보답하고, 중생의 잘못된 소견을 구제함으로써 法輪이 인간세상(閻浮)에 다시 구르고, 道光이 千載(千歲)에 거들 빛나게 하여 四恩<sup>38)</sup>이 마침내 ...<sup>39)</sup>

라 하였다. 즉 義天은, 유학자나 佛子가 학문을 닦고 수행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太平聖代를 이끌고자 함을 말하고, 이어서 6-7천여 권에 이르는 대장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註疏(章疏)를 수집함과 동시에 「교장총록」을 찬술한 배경에는, 古今 賢哲의 模範的인 章疏(註疏)에 입각하여 我執에 빠지기 쉬운 '중생의 잘못된 소견을 구제함으로써, 佛法의 道光이 千歲

와 空始敎로 구분할 수 있는데, 相始敎에는 「解深密經」·「瑜伽經」·「唯識論」 등이 해당되고, 空始敎에는 「般若經」·「中論」·「百論」 등이 해당된다. 元曉는 '四敎判'에서 이 부분을 通敎에 배정하기도 하였다). ③연이어 의전은 '大乘終敎'의 핵심 논서인 「大乘起信論」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면서 '大乘頓敎의 宗旨'까지 익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그리하여 의전은 圓敎의 '圓融의 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華嚴經」을 배워야 할 것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34) 위와 같이 義天은 「俱舍論」에서부터 「唯識論」과 「起信論」 및 「華嚴經」에 이르기까지 諸宗의 핵심 經論들을 두루 빠짐없이 익힘으로써, 佛教 全般에 걸친 敎學의 이해와 '諸宗의 兼學'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35) 따라서 위의 대목은 「교장총록」 分類體系의 暗示性을 糾明할 수 있는 핵심 基盤이기도 하다.

36) '출중한 재능의 소유자'라 번역한 대목의 原文은 '拔萃之器'라 하여 '上根器의 수행자'를 일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根器'는 根性에 따라 각각 法을 받아들이므로 根器라 한 것으로 보인다. '根機'에서의 '機'는 發動한다는 뜻으로, 根機는 敎法을 듣고 닦아 얻는 능력과, 敎법을 받는 중생의 性能을 말한다.

37) 五乘: 解脫의 果位를 얻게 하는 佛陀의 敎法을 수레에 비유하여 乘이라 한다. 예컨대, 華嚴宗에서는 小乘·聲聞乘·緣覺乘·菩薩乘·一乘으로 하고 있고, 眞言宗에서는 人·天·聲門·緣覺·菩薩을 地·水·火·風·空의 五大에 비기어 함께 大日如來의 法身 그것이라고도 한다.

38) 三寶(佛·法·僧)·國王·父母·衆生의 은혜.

39) 義天, "與內侍文冠書," 「大覺國師文集」 卷第13,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267-269.

에 거듭 빛나게 하겠다.’는 의천의 根源的인 念願이 內在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40)</sup> 그리하여, ① “지금 전하는 三藏의 正文(大藏經)이 거의 7천여 권에 이르고, 그밖에 古今 賢哲이 註疏(章疏)를 낸 것이 1천년 동안 없지 않아서 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출중한 재능의 소유자(上根機)’라 하더라도 몸을 마치도록 그 업을 다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데, 더구나 中根과 下根의 사람이야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義天은 완비된 三藏의 鎭兵大藏經과 이에 따른 ‘古今賢哲 章疏의 巨大性和 總網羅性’을 논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五乘의 가르침 속에 대략적인 요체(大端)가 들어있으니, 불교를 배우는 자라면 未來際를 다하도록 여기에 마음을 기울여야만(用心) 하겠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은덕에 보답하고, 중생의 잘못된 소견을 구제함으로써 法輪이 인간세상(閻浮)에 다시 구르고…”라고 한 대목에서 우리는, 義天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章疏들로 ‘해탈의 과위를 얻게 하는 佛陀의 교법을 익힘’으로써 중생의 잘못된 소견을 구제함으로써 法輪이 인간세상(閻浮)에 다시 구르기를 소망하는 ‘衆生救濟의 念願性’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위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내용의 다음 張인 『大覺國師文集』 卷第15의 第7張의 缺落으로 인하여, 정작 위 彫印疏 제목과 관련한 제종교장의 彫印 企劃에 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sup>41)</sup> 다만 의천이 〈송나라 行者 顏顯에게 준 글(與大宋行者顏顯書)〉에 의하면,

… 근래에 王旨를 받들어 諸宗의 章疏를 수집해서 [거의 수]천 권을 목판으로 새기고(鑄板) 있는데, 지금 우선 某集 약간과 某冊 약간을 부쳐 보내니, 秀州에 도착하는 날 仲閏梨 位通 문하에 나아가서 이러한 뜻을 말로 전해주기 바랍니다(比來奉王旨 鳩集諸宗教疏[僅數]千卷 鑄板次 今先附去[某]集若干[某冊若] 到秀州日 請詣仲閏梨位通下[仍]爲口 [傳]此意<sup>42)</sup>

라 하였고, 게다가 金富軾 지은 ‘[靈通寺 大覺國師 碑文]’에서는

… 그리고 위(王)에 請하여 興王寺에 敎藏司를 설치한 다음 名流를 불러 잘못된 곳을 교정하여 간행하게 한 결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文籍이 크게 갖추어졌으므로 학자들이 기뻐하여 의지하게 되었다(怠不講故 官膳私褚 亡散幾盡 遂重購求書於中國 以及契丹日本 又於辛未春 南遊搜索所得書無慮四千卷 … 俱收並拾 包匭以歸. 請置敎藏司於興王寺 召名流 刊正謬缺 使上鈐槧 不幾稔間 文籍大備 學者忻賴)<sup>43)</sup> …

40)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 찬술 배경과 서지기술 및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27-28.

41) 諸宗教藏의 雕造 時期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래(現傳)되는 原本 鑿刻本과 重印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 雕造年이 가장 빠른 것은 1092년(大安 8; 宣宗 9)이고, 1102년(乾統 2; 肅宗 7)이 마지막 板刻年度로 확인된다(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148, 152.) 參照).

42) 義天, “與大宋行者顏顯書,” 『大覺國師文集』 卷第11,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234-235.

라 하였다. 위의 두 기록에 의하면, ‘의천이 興王寺에 〈敎藏司〉를 설치한 것은 1091년 무렵이며, 名流들을 불러 모아서 교정하게 하여 [제종교장의 간행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文籍이 大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총록」 목록찬술이 1090년 8월에 완료되고 〈敎藏司〉가 설치(1091)되면서, 諸宗教藏의 雕造는 즉시 그 작업이 着手되었으며, 그 마무리는 아무리 늦어도 10년 이내 즉 의천의 涅槃(1101 : 肅宗 6. 1011.10.5.) 이전에는 그 조조가 완료되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44)</sup>

무릇 「敎藏總錄」은 諸宗教藏(續藏經)의 目錄이기 때문에, 이 목록 작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諸宗教藏을 간행하여 이른바 一藏으로 完成하는 것이다. 의천 자신도, 〈「新編諸宗教藏總錄」序(1090)〉에서 “앞으로 編次와 函秩이 三藏의 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해진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正藏(大藏經)을 補贖하는 續藏 雕造의 完成을 念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장총록」에는 ‘諸宗教藏(續藏) 雕造의 完結性’이라는 特性도 나타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 3. 「敎藏總錄」의 體系書誌的 分析

「新編諸宗教藏總錄」의 목판 간행본은 현재 국내외에 그 전래가 끊어진 듯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목록의 筆寫本이 現存 最古의 資料로 現存하고 있다. 바로 ‘일본 高山寺 소장 「新編諸宗教藏總錄」’<sup>45)</sup>이다. 필자를 포함한 ‘(사)장경도량 대장경연구소 제종교장 프로젝트팀’은 2015년 12월 25일에 〈일본 高山寺 所藏 「新編諸宗教藏總錄」〉<sup>46)</sup>을 현지 육안(肉眼) 조사를 실시하였다.<sup>47)</sup> 본 章에서는 高山寺本 「新編諸宗教藏總錄」 및 「大正新修大藏經」 卷第55, No.2184에 수록된 「교장총록」의 分類體系와 각 經論名 아래에 章疏排列의 原理 등을 考究해 봄으로써, 「교장총록」의 體系書誌的인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高山寺 소장 「新編諸宗教藏總錄」의 目錄記入의 방식을 살펴보면, 「敎藏總錄」은 ‘攄3卷(海東有本見行錄上·中·下)’으로 編成되고 있다. 그 중 ‘卷第1’은 ‘海東有本見行錄上’으로 이른바 ‘經部’에 해당하며, 이는 ‘古書分類의 類·綱·目’ 중 ‘類’의

43) [金富軾], “[영통사 대각국사 비문],”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695,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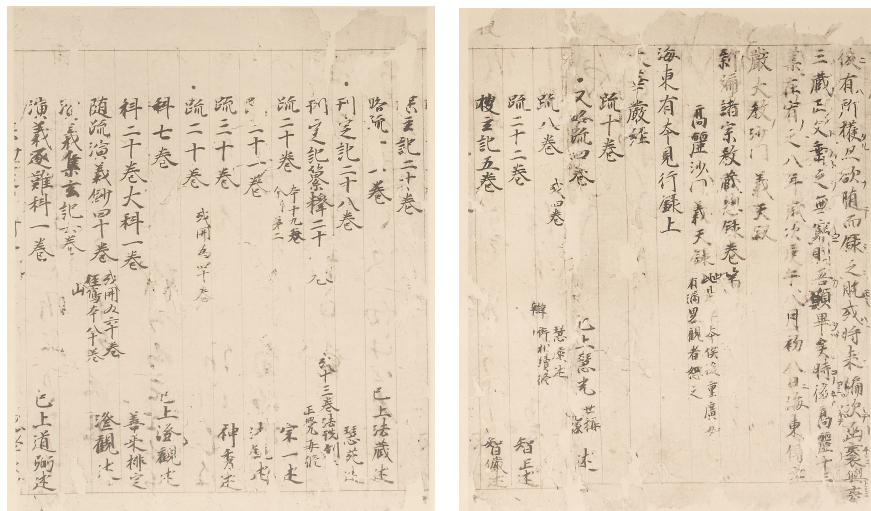
44)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 찬술 배경과 서지기술 및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30-31.

45) 이 자료는 현재 ‘일본 교토박물관’에 위탁 보존되고 있다.

46) 이하 ‘高山寺本’으로 약칭함.

47)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 찬술 배경과 서지기술 및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31.

部類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華嚴經』이라는 ‘綱’의 經典名이 제시되고, 이 ‘綱’ 아래에 ‘目’의 개념으로 『화엄경』과 관련된 章疏 177部 1,247卷의 章疏들이 安排되고 있다. 그리하여 『教藏總錄』 卷第1에는 총 47種의 大乘經典名(‘綱’) 아래에 각각의 相關當該章疏들(‘目’)이 배열되고 있다.



<그림 1> 高山寺 所藏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卷首題 등<sup>48)</sup>

### 3.1 『教藏總錄』 卷第1의 分類體系

『教藏總錄』 卷第1(經部)에 나타나고 있는 ‘綱’의 분류체계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49)</sup>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의천은 수집한 모든 章疏들을 목록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① ‘卷第1’은 大藏經 三藏 중 經部를 ‘類’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편성하고, ② 經藏에서는 大乘의 佛典名 즉 47개의 書名을 ‘綱’의 개념으로 설정하면서, ③ 綱의 下部에는, 箇箇의 章疏 및 疏鈔들을 最下位의 개념인 ‘目’으로 설정한 分類體系라고 볼 수 있다.

48) 출처: 大屋德城 編, 『新編諸宗教藏總錄』 影印本 제1권 (東京: 便利堂, 昭和11(1936), [2-3].

49) 本節에서는 『教藏總錄』의 分類體系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 편의상 既存의 筆者의 論考 중에서, ‘金聖洙,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2011. 12), 22-30.’을 다시 압축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교장총록』의 第2~3卷의 분류체계는, 또한 이하의 ‘經部 分類체계의 분석’과 동일한 觀點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本考에서는 생략함.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正體性 및 體系書誌的 分析

<표 1> 「敎藏總錄」 卷第1'의 分類體系 및 '義天의 敎學觀'과 敎相判釋 등<sup>50)</sup>

| 『教藏總錄』<br>經部 分類體系 | 章疏 部數 /<br>卷數 | 義天教學思想<br>(主要經論) | 『開元釋教錄』<br>經部分類體系 | 賢首法藏<br>五教判      | 天台智顗<br>五時教判 等                         | 思想・信仰別<br>區分 等 |  |  |  |
|-------------------|---------------|------------------|-------------------|------------------|----------------------------------------|----------------|--|--|--|
| 1.(大)華嚴經          | 177부 1,247권   | 圓融의 門<br>(華嚴[經]) | ④ 華嚴部             | 一乘圓教             | 華嚴時 圓・頓                                | 唯心思想           |  |  |  |
| 2.(大)涅槃經          | 30부 107권      |                  | ⑤ 涅槃部             | 終教<br><br>(楞伽經)  | 法華・涅槃時<br>圓教<br>非頓・非漸<br><br>(法華, 涅槃經) |                |  |  |  |
| 3.毘盧神變經           | 4부 28권        |                  |                   |                  |                                        |                |  |  |  |
| 4.法華經             | 60부 234권      |                  |                   |                  |                                        |                |  |  |  |
| 5.無量義經            | 1부 2권         |                  |                   |                  |                                        |                |  |  |  |
| 6.楞伽經             | 11부 46권       | 終頓의 旨<br>(起信[論]) | ⑥ 經集部             | 頓教<br><br>(維摩經)  | 方等時<br><br>漸教<br><br>(維摩經)             | 起信論<br>一心思想    |  |  |  |
| 7.首楞嚴經            | 27부 174권      |                  |                   |                  |                                        |                |  |  |  |
| 8.圓覺經             | 18부 94권       |                  | ① 般若部<br>(般若心經)   | 空始教<br><br>(般若經) | 般若時<br><br>漸教<br><br>(般若經)             | 般若思想<br>[中觀論]  |  |  |  |
| 9.維摩經             | 19부 141권      |                  |                   |                  |                                        |                |  |  |  |
| 10.金光明經           | 25부 84권       |                  |                   |                  |                                        |                |  |  |  |
| 11.仁王經            | 12부 48권       |                  |                   |                  |                                        |                |  |  |  |
| 12.金剛般若經          | 29부 73권       |                  |                   |                  |                                        |                |  |  |  |
| 13.般若理趣分經         | 7부 10권        |                  | ⑥ 經集部             | 終教<br><br>(勝鬘經)  | 方等時<br><br>漸教<br><br>(勝鬘經)             | 如來藏思想          |  |  |  |
| 14.大品般若經          | 1부 3권         |                  |                   |                  |                                        |                |  |  |  |
| 15.般若心經           | 19부 30권       |                  | ② 寶積部             |                  |                                        |                |  |  |  |
| 16.六波羅蜜經          | 2부 20권        |                  | ⑥ 經集部             |                  |                                        |                |  |  |  |
| 17.金剛三昧經          | 2부 10권        |                  | ③ 大集部             |                  |                                        |                |  |  |  |
| 18.勝鬘經            | 3부 7권         |                  |                   |                  |                                        |                |  |  |  |
| 19.不增不減經          | 1부 1권         |                  | ⑥ 經集部             | 相始教<br>(解深密經)    |                                        | 唯識思想,<br>[唯識論] |  |  |  |
| 20.諸法無行經          | 1부 5권         |                  |                   |                  |                                        |                |  |  |  |
| 21.般舟三昧經          | 1부 1권         |                  | ⑥ 經集部             | 終教               |                                        | 如來藏思想          |  |  |  |
| 22.注思益經           | 1부 10권        |                  |                   |                  |                                        |                |  |  |  |
| 23.解深密經           | 2부 10권        | 始教의 宗<br>(唯識[論]) |                   |                  |                                        |                |  |  |  |
| 24.無上依經           | 1부 4권         | 終頓의 旨            |                   |                  |                                        |                |  |  |  |

50) 김성수,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2011. 12), 23-24. 參考.

| 「教藏總錄」<br>經部 分類體系 | 章疏 部數 /<br>卷數 | 義天教學思想<br>(主要經論) | 「開元釋教錄」<br>經部分類體系 | 賢首法藏<br>五教判 | 天台智顗<br>五時教判 等 | 思想・信仰別<br>區分 등         |
|-------------------|---------------|------------------|-------------------|-------------|----------------|------------------------|
| 25.大寶積經           | 3부 5권         | (其他)             | ② 寶積部             | (其他)        | (其他)           |                        |
| 26.本生心地觀經         | 2부 12권        |                  | ⑥ 經集部             |             |                | 父母恩 등 四恩               |
| 27.文殊說般若經         | 1부 2권         |                  | ① 般若部             |             |                | 文殊淨土思想                 |
| 28.觀無量壽經          | 15부 24권       |                  | ② 寶積部             |             |                | 阿彌陀淨土思想<br>(阿彌陀信仰)     |
| 29.大無量壽經          | 3부 3권         |                  |                   |             |                |                        |
| 30.小阿彌陀經          | 19부 31권       |                  |                   |             |                |                        |
| 31.稱讚淨土經          | 3부 5권         |                  |                   |             |                |                        |
| 32.彌勒上生經          | 9부 23권        |                  | ⑥ 經集部             |             |                | 彌勒淨土思想<br>(彌勒信仰)       |
| 33.彌勒下生經          | 5부 7권         |                  |                   |             |                |                        |
| 34.彌勒成佛經          | 1부 1권         |                  |                   |             |                | 藥師如來淨土思想<br>(藥師如來信仰)   |
| 35.彌勒經            | 2부 7권         |                  |                   |             |                |                        |
| 36.藥師經            | 7부 12권        |                  |                   |             |                |                        |
| 37.灌頂經            | 1부 1권         |                  |                   |             |                |                        |
| 38.方廣經            | 1부 1권         |                  |                   |             |                |                        |
| 39.四十二章經          | 4부 6권         |                  |                   |             |                | 최초의 漢譯佛典               |
| 40.溫室經            | 1부 1권         |                  |                   |             |                |                        |
| 41.孟蘭盆經           | 15부 24권       |                  |                   |             |                | 父母恩, 伯仲供養,<br>功德       |
| 42.報恩奉益經          | 1부 1권         |                  |                   |             |                |                        |
| 43.無常經            | 3부 10권        |                  |                   |             |                |                        |
| 44.天請問經           | 2부 4권         |                  |                   |             |                |                        |
| 45.請觀音經           | 3부 3권         |                  |                   |             |                | 密教經典<br>(陀羅尼 系統)<br>修行 |
| 46.消災經            | 4부 8권         |                  |                   |             |                |                        |
| 47.八大菩薩曼陀羅經       | 2부 6권         |                  |                   |             |                |                        |
|                   |               | 小乘의 說 (俱舍[論])    |                   |             | 阿含時            |                        |
| 총계                | 561부 2,586권   |                  |                   |             |                |                        |

그리하여 예컨대, ‘(大)華嚴經’이라는 ‘綱’의 項目에서는 이른바 ‘첫 行(줄) [2.5칸] 올려쓰기’<sup>51)</sup>의 방법으로 ‘綱의 識別要素’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예컨대, 「大華嚴經」이라는 ‘綱’에서 그 하부주제인 章疏名을 記入하는 ‘目’에 와서야 비로소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화엄 관련 章疏(疏鈔)들을 또한 어떤 일정한 準則에 의거하여 배열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義天은 <刊定成唯識論單科 序>에서, “... 『俱舍[論]』<sup>52)</sup>를 배우지 않으면 ‘小乘의 說’을 알지 못하고, 『唯識[論]』을 배우지 않고서는 ‘始敎의 宗’을 볼 수 없으며, 『起信[論]』을 배우지 않으면 ‘終頓(終敎와 敦敎)의 旨(뜻)’을 밝힐 수 없고, 또한 『華嚴[經]』을 배우지 않으면 ‘圓融의 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진실로 얕음(淺)으로써는 깊음(深)에 이를 수 없지만, 깊음[깊은 지식]은 반드시 얕음[얕은 지식]을 겸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당연한 이치(理數之然)이다. 그러므로 경의 偈頌에 ‘못물이나 강물(池河)을 마실 힘이 없이 어찌 大海의 물을 삼킬(吞) 수 있으며, 二乘의 법도 익히지 아니하고 어찌 大乘을 배울 수 있으랴?”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信實한 말이다. 이승도 오히려 배워야 하는데 하물며 대승을 어찌 배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53)</sup>라고 하였다. 바로 이 부분은 “‘義天의 敎學觀(思想)’이라 할 수 있는 ‘小乘의 說’ ⇒ ‘始敎의 宗’ ⇒ ‘終頓의 旨’ ⇒ ‘圓融의 門’”<sup>54)</sup>으로 나아가는, 여러 ‘敎相判釋’의 綜合的 見解’라 할 수 있다. 「敎藏總錄」의 分類體系는 바로 이와 같은 “義天의 敎學觀’의 逆順’에 입각하여 그 分類體系가 수립되었음”<sup>55)</sup>을

51) 이것은 漢文이 세로줄로 記入되기 때문에, ‘칸’의 개념으로 보면 ‘첫 2.5칸 올려쓰기’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현대에서는 가로쓰기가 보편적이므로, 이러한 양식은 이른바 ‘첫줄 내어쓰기’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2) 世親이 짓고, 玄奘이 漢譯한 「阿毗達磨俱舍論」의 약칭. 論藏 가운데 뛰어난 진리(勝義)를 껴잡아 지니고 있다는 對法藏이란 뜻.

53) 義天, “刊定成唯識論單科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65-66.

54) 諸宗의 兼學을 특히 강조한 義天의 敎學思想은, 얕은 지식의 단계인 ‘小乘의 說’을 알기 위하여 『俱舍論』을 먼저 배우면서 소승의 경전들을 익히고 아울러 관련 章疏들을 학습하는 단계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점 더 깊어지는 知識인 大乘의 단계로 차츰 올라가서, 마침내 가장 심오한 ‘圓融의 門’에 들어가기 위하여 『華嚴經』을 배우면서 그 관련 章疏들을 함께 열심히 학습하여야 비로소 盧舍那佛의 境界(깨달음: 覺; 道; 華嚴의 世界)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천은, 고려와 중국 및 거란과 일본 등지로부터 극력 수집한 모든 章疏와 疏鈔들을 一大의 敎藏으로 入藏하기 위하여 가장 論理的이고 體系의인 目錄으로 編成할 때에는, 가장 深奧한 단계인 ‘華嚴’부터 그 逆順으로 編成하였을 것이라고 推定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의천은 小乘에서부터 大乘 最高의 經典인 「華嚴經」에 이르기까지 諸宗의 經論들에 대한 兼學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義天이 「교장총록」을 편성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천의 敎學思想의 逆順이라 할 수 있는 ‘圓融의 門(華嚴)’ → ‘終頓의 旨(起信)’ → ‘始敎의 宗(唯識)’ → ‘小乘의 說(俱舍)’과 對比하여 분석할 때에는, 「교장총록」에서 諸 章疏(分類學에서의 ‘目’)들을 目錄으로 集成할 때, 그 上位의 개념인 해당 佛典名(經論의 題目: 分類學에서의 ‘綱’)들을 과연 어떤 分類體系를 수립하여 排列하였는가?의 문제를 고찰하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55)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12).

이미 立證한 바 있다.<sup>56)</sup> 그리하여 <표 1>에서 1.화엄경에서부터 47.팔대보살만다라경에 이르기까지의 分類體系 즉, 47개 綱의 排列順序를 분석하여 보면, 위와 같은 47개의 경전명의 배열순서를 「開元釋教錄」 經部 分類體系의 개념으로 보면, '般若·寶積·大集·華嚴·涅槃·經集'부의 각 경전의 群들이 산만하게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大屋徳城은 '章疏의 배열순서가 「開元釋教錄(略出)」과 같지 않고, 華嚴 및 天台의 敎相判釋에도 의거한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準則이 없고 無雜(無秩序)하다'<sup>57)</sup>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의천의 敎學思想'에 입각하면, 「敎藏總錄」 經部の 分類體系는 다음과 같은 4大群으로 구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① 첫 번째 經典群인 '1.華嚴經에서부터 5.無量義經'까지의 經典群은 '圓融의 門'과 관련하여 '1.華嚴經'을 筆頭に 배치함과 동시에 '2.涅槃經'과 '4.法華經' 등 5개 경전을 '華嚴經의 무리(群)'로 安排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華嚴[經]을 배우지 않으면 圓融의 門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義天의 敎學觀을 「敎藏總錄」의 편성에서 對辯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두 번째의 經典群 즉, '6.楞伽經'을 맨 먼저 安排하면서 '9.維摩經'과 '15.般若心經' 및 '17.金剛三昧經'을 포함한 18개 經典群은 이른바 「[大乘]起信論」의 學習과 관련한 '終頓의 旨'라는 義天의 敎學觀과 깊은 關聯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18개 經典群에서는 이른바 義天의 敎學觀에서 '終頓의 旨'를 代辨하는 「大乘起信論」은 「楞伽經」을 바탕으로 한 論書이기 때문에, 이 經典群에서는 당연히 '6.楞伽經'이 첫 번째로 安排하고 起信論 一心思想의 5개 經典들을 하나의 經典群으로 包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大乘起信論」은 大乘經典에서 說하고 있는 모든 思想을 綜合的으로 會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觀思想(般若思想)과 如來藏思想 및 唯識思想까지 調和되어 있기 때문에 '15.般若心經'을 비롯한 般若思想의 6個 經典의 經典群과, '17.金剛三昧經'을 비롯한 如來藏思想의 7個 經典의 經典群 등을 포괄하고

56) 필자가 1982년 (上記 脚註의) 논문에서 「敎藏總錄」의 分類體系를 分析할 때에 參考한 敎判은, 道生에서부터 宗密에 이르기까지 20餘宗을 參照하였으나, 本考에서는 아래의 表와 같이 5家の 敎判만을 들어 論술하고자 한다.

| 區分  | 敎相判釋 內容                                                            | 備考     |
|-----|--------------------------------------------------------------------|--------|
| 義天  | 華嚴 / 涅槃 法華 / 楞伽 維摩 圓覺 / 勝鬘 解深密 般若 梵網 瓔珞 / 起信 成唯識 中(觀)論 / 俱舍(論): 小乘 | 義天 敎學觀 |
| 慧觀  | 華嚴 / 涅槃 / 法華 / 維摩 / 般若 / 小乘                                        | 二敎五時   |
| 賢首  | 華嚴 法華 / 維摩 / 楞伽 勝鬘 起信 寶性 / 深密 唯識(論) 般若 中論 / 小乘                     | 五敎     |
| 天台  | 法華 涅槃 / 般若 / 方等 / 鹿苑 / 華嚴                                          | 五時(八敎) |
| 李通玄 | 華嚴 涅槃 / 法華 維摩 / 楞伽 深密 / 般若 中論                                      | 十宗教    |
| 元曉  | 華嚴 普賢敎 / 梵網 瓔珞 / 般若 深密 / 緣起經 四諦敎 等                                 | 四敎     |

57) 大屋徳城, 「高麗續藏經雕造考」(東京: 便利堂, 昭和 12(1937)), 2-9.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義天의 敎學觀’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始敎의 宗’과 관련되는 經典으로는 ‘23.解深密經’을 들 수 있다. 이는 義天의 “『唯識論』을 배우지 않고서 어찌 『大乘』始敎의 宗[旨]을 알겠으며 …”라고 하는 ‘始敎의 宗’과 관련한 唯識 및 唯識思想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解深密經’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해심밀경’은 如來藏思想 관련 경전군의 後尾에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58)</sup> 아마도 이것은 의천이 『교장총록』을 편성할 당시(1090)에는 ‘해심밀경’을 終敎에 속하는 經典으로 보았다가, 이른바 ‘海印寺 隱居(1094. 5)’ 이후에 唯識을 重視하면서 終敎와 相始敎에 대한 敎判의인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59)</sup> ④ <표 1>에서 ‘25.大寶積經’부터 마지막 ‘47.八大菩薩曼陀羅經’까지의 經典群은 이른바 ‘의천의 敎學觀’에도 언급되지 않은 ‘其他의 大乘經典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경전은 물론 賢首나 天台의 敎判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교장총록』에서 이러한 分類體系를 불교의 思想・信仰別 구분의 觀點에서 바라보면, 그 排列順序가 文殊・阿彌陀・彌勒・藥師如來思想 및 密敎經典 등의 순서로 분명하게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기 때문에, ‘그 분류체계상의 一目瞭然함이 한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교장총록』에서 비록 ‘기타의 경전군’에 속하지만, 아마도 불교의 思想 및 信仰 관련 經典群으로 묶어져 있음으로 보아, 여기에서도 우리는 『교장총록』의 分類體系 및 그 編成의 치밀함을 傍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이상과 같이 義天의 敎學思想이라 할 수 있는 ‘圓融之門・終頓之旨・始敎之宗・小乘之說’ 및 기타의 개념으로 『교장총록』 卷第1(經部)의 분류에서 이른바 ‘綱’에서의 經典名, 즉

58)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해심밀경’은 ‘17.금강삼매경-22.주사익경 및 24.무상의경’과 관련한 이른바 如來藏思想 계통의 經典群 사이에 ‘23.해심밀경’이 配置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분석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의천의 敎學사상’은 1094년 5월부터 해인사에 은거(1095년 10월 숙종이 즉위한 이후 의천이 上京하기까지의 기간)하였을 때 <成唯識論>을 單科하고, 그리고 아마도 開京으로 돌아온 후에 그 刊定에서 序文을 쓴 것인 <刊定 成唯識論 單科 序>에서 추출한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교장총록』은 1090년에 편성된 것이다. 따라서 1090년 당시에 의천은, ‘元曉의 疏3권 및 圓測의 疏7권이 안배되어 있는 解深密經群’을 분류할 때, 『解深密經』을 여래장사상 계통 경전군의 하나로 보았을 蓋然性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래장사상은 인도에서 唯識說에 조금 앞서 성립한 것 같으며, 中觀・唯識思想과는 別系인데, 뒤에는 唯識說과 別立하지 않고 그 영역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래장사상은 中國華嚴宗 특히 賢首法藏의 ‘<起信論義記> 卷上’에서 四宗을 세워서 그 第4를 ‘如來藏緣起宗’이라 하여, 楞伽・密嚴 등의 經典群 및 起信・寶性 등의 論書들을 여기에 대응시켜 五敎判에 있어서의 終敎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면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59) 따라서 의천이 1090년 당시에 이와 같은 賢首法藏의 견해와 같은 敎判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如來藏思想과 관련한 『解深密經』을 (大乘)終敎의 경전 중의 하나로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義天의 海印寺 隱居(1094년 5월~) 이후에 간행된 <刊定 成唯識論 單科>의 序文에서 표현된 ‘義天의 敎學觀’에 입각하여 『敎藏總錄』 經部 分類體系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經典書名의 배열순서를 對比하여 보면, 이를 의천의 교학사상으로 크게 4구분 할 수 있는 바,<sup>60)</sup> 「교장총록」 卷第1(經部)의 분류체계는 義天의 敎學思想에 立脚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교장총록」 卷第1 분류체계의 첫머리를 점유하고 있는 ‘화엄경·열반경·법화경 등’<sup>61)</sup>이 1個群으로 구분되는 현상, 즉 「교장총록」에서 두 번째로 배치된 ‘2.涅槃經’과 네 번째로 배치된 ‘4.法華經’이 첫 번째로 위치하는 ‘1.華嚴經’과 관련성의 문제, 다시 말하여 ‘華嚴經 綱’의 經典群에 ‘涅槃經’과 ‘法華經’이 함께 按配된 문제를 細心하게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엄경」과 「열반경」 및 「법화경」은 「開元釋教錄」의 분류체계에서는 ‘화엄부·열반부·경집부’로 3구분되고, 賢首의 교판에서도 ‘圓敎·終敎’로 2구분되며, 天台의 교판에서도 ‘華嚴時·法華涅槃時’로 2구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일정한 準則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① 먼저 ‘의천은 華嚴宗 出身으로 天台宗을 開創한 바, 그는 「화엄경·열반경·법화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重視하였다<sup>62)</sup>라 하여, 의천의 불교연구 및 章疏收集과 관련한 修行的 實踐과 그 思想(敎學觀 내지는 價値觀)의 傾向 자체에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② 한편 「교장총록」 권제1의 綱의 분류체계 중 그 첫 번째의 綱으로 배치된 「대화엄경」에 편입된 疏鈔 중에서 ‘李通玄 찬술의 「[新]華嚴經論」 40卷’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李通玄의 敎判思想 중 〈依宗教別〉에 관한 논술에서 ‘第6時的 「法華經」과 第7時的 「涅槃經」은 둘 다 「華嚴經」을 보좌하는 경전으로 重視되고 있다<sup>63)</sup>고 하였다. 이러한 이통현 교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총록」 경부 앞부분의 분류체계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를 설하고, 또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圓融無碍를 설하고 있는 「華嚴經」을 核心의 求心點으로 하여 「교장총록」 경부에 그 첫머리로 내세우고, 그리고 ‘一切衆生の 實有佛性の 思想을 밝히는 「涅槃經」과 ‘3乘이 1乘으로 귀일하는 會三歸一의 사상을 지니는 「法華經」, 즉 「열반경」과 「법화경」을 「화엄경」의 兩大 挾侍經典으로 삼아 차례로 배열하고 있는 형상으로 볼 수도 있다. ③ 다른 한편, 의천에게 「法華經」과 「화엄경」은 그 어떤 愚劣을 가리려는 경전이 아닌 調和의 敎學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60) 다만 「교장총록」에서는 大乘佛敎에서 등장한 研究疏鈔인 章疏들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小乘之說과 관련한 章疏들은 수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61) 여기에서 3.大日經은, 이 경전의 ‘日’은 화엄경 비로자나불의 別名이고, 전체가 ‘1部 7卷’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의 경전이라서 화엄경에 隣接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5.무량의경은 法華三部經의 하나이기 때문에 4.법화경에 密接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62) 박용진, 「義天」(서울: 혜안, 2011), 174. 의천은 화엄경과 관련하여 23세 때부터 「貞元新譯華嚴經」을 講經하고, 智嚴·法藏·澄觀 등에 대하여 三家義疏를 서술하였다. 또한 열반경에 대하여는 「南本涅槃經」 30권을 방언으로 번역하였고, 법화경에 대하여는 국청사에서 天台妙玄을 강의하고 「法花玄義」 10권을 강의하는 등 華嚴·涅槃·法華經 관련 3백여 권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63) 戒環, 「中國華嚴思想史研究」(서울: 불광출판사, 1996), 348.

의천은 宋나라에서 華嚴宗을 위시하여 여러 종파의 교리를 익혀서 그것을 융섭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화엄종과 천태종에서 佛法을 구해왔다.<sup>64)</sup> 그리하여 ‘의천의 천태교학은 『법화경』에서 화엄사상의 융섭 논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의천은 觀法 속에 2乘・3乘이 융섭될 수 있음을 화엄사상의 융섭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의천은] 『교장총록』의 분류체계에서 敎와 觀의 입장과 一乘을 염두로 하여 章疏를 편성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sup>65)</sup>는 주장도 있다.

넷째, <표 1>에서 정리된 『교장총록』 卷第1(經部)의 분류체계를 賢首・天台의 敎判 및 諸思想 등으로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1) 正藏인 大藏經의 分類體系인 『開元釋教錄』(약출)의 분류체계와 續藏인 諸宗教藏을 편성하기 위한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의천이 수립한 獨自의인 분류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장총록』 경부의 분류체계를 賢首의 敎判으로 대비하여 보면, ‘① 一乘圓敎를 나타내는 『화엄경』, ② 『능가경』을 위주로 한 終敎의 經典群, ③ 『유마경』을 위주로 한 頓敎의 경전군, ④ 『반야경』을 위주로 한 空始敎의 경전군, ⑤ 『승만경』을 중심으로 한 終敎의 경전군(『無上依經』 포함), ⑥ 相始敎를 나타내는 『해심밀경』, ⑦ 기타의 경전군’의 순서로 按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의천이 『교장총록』을 편성할 때 화엄종 즉 賢首法藏의 敎相判釋을 충분히 참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교장총록』 경부의 분류체계를 天台의 五時敎判으로 대비하여 보면, ‘① 『화엄경』이 설해진 佛聖道 최초 37일간의 華嚴時, ② 『법화경』과 『열반경』이 설해진 般若後 약 8년간의 法華・涅槃時, ③ 『능가경』과 『유마경』이 포함된 方等時, ④ 방등시 후 약 22년간의 般若時, ⑤ 『승만경』과 『해심밀경』 등이 포함된 방등시, ⑥ 기타의 經典群’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른바 天台의 五時敎判으로도 『교장총록』 경부의 분류체계에 대한 구분이 論理的임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의천이 『교장총록』을 편성할 당시 天台의 敎判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교장총록』 경부의 분류체계를 大乘佛敎에서 등장한 諸思想별로 분석하여 보면, 위에서부터 ‘① (華嚴經) 唯心思想 → ② (起信論) 一心思想 → ③ 般若思想 → ④ 唯識이 포함된 如來藏思想 → ⑤ 淨土思想群 (文殊・阿彌陀・彌勒・藥師如來 思想) → ⑥ 其他 → ⑦ 密敎 계통의 修行’ 등 諸思想의 차례로 密集된 思想別 經典群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교장총록』 경부의 분류체계는 現代的 觀點에서도 合理的인 論理性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장총록』 분류체계의 卓越性이 다시 한 번 檢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교장총록』 卷第1(經部)의 分類體系는 ‘① 小乘의 說 → ② 始敎의 宗 → ③ 終頓의 旨 → ④ 圓融의 門’으로 나아가는 ‘義天의 敎學思想’에 立脚한 그 逆順의

64) 김두진, “義天의 天台宗과 宋・高麗 불교계와의 관계,” 『仁荷歷史學』 10(仁荷歷史學會, 2003), 185.

65)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37-38.

分類體系라는 점에서, 결국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一定한 準則이 있음」을 立證할 수 있고, 또한 그 世婦 分類體系는 元曉·賢首·天台 등의 여러 敎相判釋에 나열·제시된 각 佛典名의 逆順으로 綜合·應用함으로써 合理的이고도 論理的으로 組織된 卓越한 分類體系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2 「敎藏總錄」 ‘目’의 章疏名에 따른 형태적 분류

「敎藏總錄」의 目錄記入의 방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著作單位인 각각의 代表經典名(綱: 예컨대 「華嚴經」) 아래에 나타나는 書誌單位인 각 「章疏名(目), 卷數, 著者名, 著作性格: 사례: 「疏/ 10卷/ 慧光/ 述」의 順으로 기입되고 있다. 「교장총록」에 編入된 각 章疏는 章疏名 그 자체에 「章疏의 내용적 性格」을 내포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sup>66)</sup> 「교장총록」에 편성된 각 章疏의 排列의 原理를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67)</sup>

첫째, <표 2>에서 보는 사항은 「大華嚴經」(綱) 아래에 배열되고 있는 「華嚴經疏」(目)들이다.<sup>68)</sup>

66) 章疏名에 나타나는 종류 및 용례는 아래의 表와 같다(홍법원 편집부, 「불교학대사전」(서울: 홍법원, 2001), 참고.).

<표> 章疏의 종류와 구분 用例

| 章疏名 | 定 義                                                                                                         |
|-----|-------------------------------------------------------------------------------------------------------------|
| 疏   | 「經이나 論의 註釋書」로, 순서에 따라 문구를 자세히 해석하므로 「文義疏·義疏」라고도 하며, 원래의 취지 등을 진술하는 것을 「宣疏」라 한다.                             |
| 鈔   | 「疏를 다시 註釋한 것」으로, 글의 뜻을 요약하여 추려 엮은 책이다.                                                                      |
| 記   | 疏·鈔(章疏)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
| 註   |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글이며, 「註解」라고도 한다.                                                                               |
| 科   | 經論을 해석하기 위해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별하는 것. 「科章, 科節, 科段, 分科」라고도 한다.                                                      |
| 科文  | 文段의 구별을 더욱더 세밀하게 해석한 것. 효과가 크지만 지나치게 번소(煩瑣)해지는 단점이 있다.                                                      |
| 論   | 성현의 저작은 「論」이라고도 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
| 論義  | 問答을 하여 敎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 「論議」라고도 쓰며, 「講論·法問·問答」이라고도 한다. 그 목적은 진리를 분명히 하여 상대방에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了解시킴으로 敎에 인도하는데 있다. |
| 集解  | 여러 가지 해석을 모은 책이다.                                                                                           |
| 章   | 「篇과 章으로 나누어 法問을 論한 것」이다.                                                                                    |
| 綱目  | 사물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자세한 條目이다.                                                                                     |
| 料簡  | 헤아려 뽑아 놓은 것.                                                                                                |
| 古過記 | 「옛 聖賢의 발자취를 기록한다」는 뜻으로 개인적인 오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太賢章疏의 대표적 용례이다.                                           |

67) 이하 「각 章疏의 排列」과 관련한 문제는 최애리의 연구(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가 크게 주목된다.

68) 최애리(2006), 121-12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화엄경」 章疏의 배열은 ‘疏 - 略疏 - 搜玄記 - 探玄記 - 刊定記 - 刊定記纂釋’ 등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그 배열이 散漫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표 2〉에서 ‘著者の 생몰년대’ 사항을 살펴보면, 이들 章疏는 결국 ‘著作의 年代順’으로 배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章疏排列順을 ‘疏・記’ 단위로 보면, ‘疏(略疏) - 記(搜玄記, 探玄記, 刊定記)’로 크게 묶어본다면 ‘疏 - 記’의 順序로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華嚴經」(綱) 아래에 배열된 章疏들(目)

| 번호 | 經典名  | 章疏名                | 卷數             |    | 著者           | 저작<br>방법 | 국가    | 생몰년대      | 비고   |
|----|------|--------------------|----------------|----|--------------|----------|-------|-----------|------|
| 1  | 大華嚴經 | 疏                  | 十卷             |    | 慧光<br>(世稱光緣) | 述        | 중국/   | (468-537) |      |
| 2  | 大華嚴經 | 又略疏                | 四卷             | 已上 | 慧光           | 述        | 중국/북위 | (468-537) |      |
| 3  | 大華嚴經 | 疏                  | 八卷(或四卷)        |    | 慧遠<br>(辯相續修) | 述        | 중국/수  | (523-592) |      |
| 4  | 大華嚴經 | 疏                  | 二十二卷           |    | 智正           | 述        | 중국    | (559-639) |      |
| 5  | 大華嚴經 | 搜玄記 <sup>69)</sup> | 五卷             |    | 智儼           | 述        | 중국/당  | (602-668) |      |
| 6  | 大華嚴經 | 探玄記                | 二十卷            |    | 法藏           | 述        | 중국/당  | (643-712) | 60화엄 |
| 7  | 大華嚴經 | 略疏                 | 十二卷            | 已上 | 法藏           | 述        | 중국/당  | (643-712) | 60화엄 |
| 8  | 大華嚴經 | 刊定記                | 二十卷            |    | 慧苑           | 述        | 중국/당  | (673-743) |      |
| 9  | 大華嚴經 | 刊定記纂釋              | 二十一卷<br>(或十三卷) |    | 法詵<br>(正覺再修) | 創造       | 중국    |           |      |

둘째, 「교장총록」의 각 綱(經論名) 아래에서 目, 즉 각 章疏를 배열하는데 있어서의 순서는 “敎學에 의한 해석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큰 순서로 열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疏(註) - 記(義記) - 注 - 科(科文) - 論 - 章 - 其他’에 대한 구분을 보인다.”<sup>70)</sup>라는 연구가 있다. 그리하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章疏名의 포괄적 廣義에서 세부적 狹義의 意味로 구분’되는 이른바 群集化(grouping)되어 있는 사례도 보인다.<sup>71)</sup>

69) 華嚴經搜玄記: 佛陀跋陀羅가 번역한 ‘60권 『華嚴經』’을 해석하여 華嚴宗의 敎理를 體系化(649)한 著作으로 ‘60 화엄경’의 經文에 따라 解說한 註釋書이다.

70)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119. 이는 단지 하나의 一例일 뿐 대표경전(綱)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章疏의 이름이 바뀔 수 있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71) 최애리(2006), 119-120.

&lt;표 3&gt; 「法華經」章疏 내용의 의미[성격]에 따른 章疏 배열

| 번호 | 經典名 | 章疏名   | 卷數           |    | 著者                           | 저작<br>방법 | 국가          | 생몰연대                  |
|----|-----|-------|--------------|----|------------------------------|----------|-------------|-----------------------|
| 1  | 法華經 | 注     | 七卷           |    | 僧叡(本文題下<br>不見人名目錄<br>云僧叡述待勘) | 述        | 중국          | (355-420)             |
| 2  | 法華經 | 文句    | 十卷           |    | 智者                           | 說        | 중국/隨        | (538-597)             |
| 3  | 法華經 | 文句科   | 四卷           |    | 湛然                           | 述        |             | (711~782)             |
| 4  | 法華經 | 文句記   | 十卷           | 已上 | 湛然                           | 述        |             | (711~782)             |
| 5  | 法華經 | 判     | 七卷<br>(或十卷)  |    | 亡名                           |          |             |                       |
| 6  | 法華經 | 疏     | 十二卷          |    | 吉藏                           | 述        | 중국          | (549-623)             |
| 7  | 法華經 | 贊述    | 十卷           |    | 慧淨                           | 述        | 중국/隨        | (578-645)             |
| 8  | 法華經 | 玄贊    | 十卷           |    | 窺基                           | 述        | 중국/唐初       | (632-682)             |
| 9  | 法華經 | 會古通今鈔 | 十卷           |    | 詮明                           | 述        | 거란          |                       |
| 10 | 法華經 | 科/大科  | 四卷/一卷        | 已上 | 詮明                           | 述        | 거란          |                       |
| 11 | 法華經 | 義決    | 一卷           |    | 慧沼                           | 述        | 中國/唐        | (650-714)             |
| 12 | 法華經 | 撫要    | 四卷           |    | 契明                           | 述        |             |                       |
| 13 | 法華經 | 綱要略釋  | 一卷           |    | 智因                           | 述        |             |                       |
| 14 | 法華經 | 疏     | 七卷           |    | 玄範                           | 述        | 韓國/新羅       |                       |
| 15 | 法華經 | 疏     | 八卷           |    | 玄一                           | 述        | 한국/신라       |                       |
| 16 | 法華經 | 疏     | 十六卷<br>(或八卷) |    | 憬興                           | 述        | 한국/新羅<br>後期 | (681-691)神文王<br>當時 沙門 |
| 17 | 法華經 | 古跡記   | 四卷           |    | 大寶                           | 述        |             |                       |
| 18 | 法華經 | 疏     | 三卷           |    | 道倫                           | 述        | 한국/신라       | 7-8세기                 |

<표 3>에서 「法華經」(綱)에 나타난 註釋의 의미에 따른 章疏(目)의 배열을 살펴보면, 1번-5번(I 群集), 6번-13번(II 군집), 14-18번(III 군집) 등의 주석에 의미에 따라 구분되어짐을 볼 수 있다. 즉, 1) 제 I 군집은 僧叡(355-420)의 「注」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이 章疏는 「法華經」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것이다. 다음으로 智者의 「文句」는 「法華經」經文을 해석해 놓은 것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경전을 이해하는데 주석의 의미가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것으로 나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 II 군집인 여섯 번째 위치한 吉藏의 「疏」는 「法華經」에 대한 주석의 의미가 먼저 배열된 장소와는 다른 의미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吉藏의 「法華經疏」는 天親의 「法華論」에 대한 유일한 疏로, 法華思想을 이해하는데 中國佛教思想 중에서 중요쟁점이 三車와 四車說(사거설)이 있다. 법운과 천대는 會三歸一의 一佛乘의 四車說이라고 하고, 吉藏과 窺基는 會二歸一의 三車說(삼거설)을 주장하여 그 입각점이 분명히 다르다.<sup>72)</sup> 3) 마지막으로 보이는 제 III 군집은 앞서 나타났던 주석의 의미보다 작은 문구를 해석한

「疏」의 군집으로 파악된다.<sup>73)</sup> 동시에 제Ⅲ군집은 新羅僧의 章疏들을 群集化하였다는 특징도 보인다. 또한 각 군집별 章疏들은 각각 그 著作別 年代順別로 배치하고 있다는 특성도 보인다.

바로 위와 같이 ‘章疏의 性格 및 내용에 따라 서로 密接시켜 群集化하는 특징’과 ‘中國僧의 章疏와 新羅僧의 章疏들을 隣接시키는 특성’은, 現代分類學에서 ‘分類란 類似한 主題끼리 密接시키는 것이다’, ‘分類表에 설정되지 않은 主題는 가장 가깝고 비슷한 주제와 함께 분류한다.’는 ‘분류의 정의 및 일반규정’에도 合致됨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義天은 華嚴宗 祖師의 系譜를 ‘華嚴9祖說’<sup>74)</sup>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의천의 思想的 傾向이 「敎藏總錄」의 編成에 도입되었는가? 등의 문제는 <표 4><sup>75)</sup>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

<표 4> 華嚴9祖說에 따른 관련 章疏 배열

| 번호 | 經典名  | 章疏名                  | 卷數                            |    | 著者                  | 찬술<br>방법 | 국가   | 생몰연도      |
|----|------|----------------------|-------------------------------|----|---------------------|----------|------|-----------|
| 78 | 大華嚴經 | 指歸                   | 兩卷                            |    | 佛陀三藏 <sup>76)</sup> | 述        |      |           |
| 79 | 大華嚴經 | 廣釋義章                 | 一卷                            |    | 光緣 <sup>77)</sup>   | 述        |      | (468-537) |
| 80 | 大華嚴經 | 章門雜孔目 <sup>78)</sup> | 四卷                            |    | 智儼 <sup>79)</sup>   | 述        | 중국/唐 | (602-668) |
| 81 | 大華嚴經 | 要義問答 <sup>80)</sup>  | 二卷<br>(世云五十要問答是)              |    | 智儼                  | 述        | 중국/당 | (602-668) |
| 82 | 大華嚴經 | 十玄章 <sup>81)</sup>   | 一卷(又有一本題云<br>十玄無礙義者疑後人<br>所述) |    | 智儼                  | 述        | 중국/당 | (602-668) |
| 83 | 大華嚴經 | 六相章                  | 一卷(三性章附)                      | 已上 | 智儼                  | 述        | 중국/당 | (602-668) |
| 84 | 大華嚴經 | 敎義分齊                 | 三卷                            |    | 法藏 <sup>82)</sup>   | 述        | 중국/당 | (643-712) |

72) 이영자, 「법화·천태사상 연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14.

73) 최애리(2006), 120.

74) 義天은 華嚴의 宗祖를 ‘①馬鳴 - ②龍樹 - ③天親 - ④佛陀 - ⑤光統(慧光/光錄) - ⑥帝心(杜順/法順) - ⑦雲華(智儼) - ⑧賢首(法藏) - ⑨清涼(澄觀)’으로 그 9祖說을 定하였다.

이는 종래 중국의 淨源이 勅命에 의하여 정한 ‘華嚴7祖’에 들어간 圭峰宗密을 제외하였으며, 地論宗(唐代的 法相宗) 宗祖인 光統慧光을 第5祖로 포함시킴으로써, 고려 당시 華嚴宗과 法相宗을 和會하는 한국의 會通 佛教의 法統觀을 수립했다는 것을 시사한다(장애순(戒環), 「中國華嚴思想史研究」(서울: 불광출판사, 1996), 32.).

75) 최애리(2006), 135-136.

76) 義天 華嚴9祖說의 第4祖.

77) 義天 華嚴9祖說의 第5祖.

78) 智儼의 晩年撰述(62세 이후)로 갖춰진 이름은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章’이다. 晉譯 ‘60 華嚴’에 기초하여 140여 장목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도처에서 唐譯 ‘80 華嚴’도 인용하고 있다. 이 책 속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견해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같은 저자의 「수현기」 및 杜順이 설하고 智儼이 찬술했다고 전해지는 「화엄일승십현문」과 더불어 法藏(643-712)의 「담현기」의 기포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대화엄경지귀』’에서부터 ‘84.『대화엄경교의분제』’에 이르기까지에는 ‘華嚴9祖說’에 따른 著者の 章疏들이 모두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目錄記入의 방법’으로만 관찰하면, 이러한 記入의 방식은 결국 ‘同一主題 內에서의 著作年代順 記入(排列)’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은 ‘章疏의 著作年代順 記入(按排)’의 사례는, 〈표 5〉<sup>83)</sup>에 제시하는 ‘『法華經』章疏’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5〉 「法華經」 관련 祖師順에 따른 章疏 배열

| 번호 | 경전명 | 章疏名       | 권수    |    | 저자 | 찬술<br>방법 | 국가   | 생몰연도               |
|----|-----|-----------|-------|----|----|----------|------|--------------------|
| 19 | 法華經 | 玄論        | 十卷    |    | 吉藏 | 述        | 중국   | (549-623)          |
| 20 | 法華經 | 玄義        | 十卷    |    | 智者 | 說        | 중국/隨 | (538-597)          |
| 21 | 法華經 | 科         | 六卷    |    | 湛然 | 述        | 중국/당 | (711~782)          |
| 22 | 法華經 | 釋籤        | 十卷    |    | 湛然 | 述        | 중국/唐 | (711~782)          |
| 23 | 法華經 | 本跡十妙不二門   | 一卷    | 已上 | 湛然 | 述        | 중국/당 | (711~782)          |
| 24 | 法華經 | 十不二門指要科   | 二卷/一卷 |    | 智禮 | 述        | 중국/宋 | (960-1028)         |
| 25 | 法華經 | 十不二門文心解/科 | 一卷/一卷 |    | 仁岳 | 述        | 중국/송 | (982-1064)         |
| 26 | 法華經 | 十不二門總別指歸  | 一卷    |    | 梵臻 | 述        |      |                    |
| 27 | 法華經 | 注法華本跡不二門  | 一卷    |    | 宗昱 | 述        |      |                    |
| 28 | 法華經 | 十不二門顯妙    | 一卷    |    | 處謙 | 述        |      |                    |
| 29 | 法華經 | 讀十不二門新注   | 一卷    |    | 慈梵 | 述        |      |                    |
| 30 | 法華經 | 論三千書      | 一卷    |    | 仁岳 | 述        | 중국/송 | (982-1064)<br>후산외파 |
| 31 | 法華經 | 答三千書      | 一卷    |    | 尙賢 | 述        | 중국/송 | (?1028-1033?)      |
| 32 | 法華經 | 議方便品題     | 一卷    |    | 從諫 | 述        |      | (?-1108)           |
| 33 | 法華經 | 扶宗權實辨正章   | 一卷    |    | 彦欽 | 述        |      |                    |
| 34 | 法華經 | 答海月大師絳惟十問 | 一卷    | 已上 | 彦欽 | 述        |      |                    |

79) 義天 華嚴9祖說의 第7祖.

80) 『五十要問答』 2권: 華嚴學의 중요한 이치를 53가지 문답형식으로 설명하였다. 소승·삼승과 일승화엄의 교설을 비교하고 화엄이 구경대승임을 설한 것이다. 58세 이후에 찬술된 것으로 보인다.

81) 『一乘十玄門』 1권: 십현연기문을 설한 것인데, 화엄경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이일승십현문은 두순이 설한 것을 지엄이 찬술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82) 義天 華嚴9祖說의 第8祖.

83) 최예리(2006), 133.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章疏들은 우선 그 著作年代順 따라 安排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天台宗의 系譜에 의하면, 天台智者(智顗)의 「玄義」와 吉藏의 「玄論」의 順序에 입각해야 마땅하다. 즉 '19.吉藏<sup>84)</sup>의 「法華經玄論」'이 앞에 排置되고 '20.智者<sup>85)</sup>의 「法華經玄義」'가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교장총록」의 편성에서, 2차적 분류기준인 註釋書에 내포된 敎學的의 의미가 「현론」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장총록」의 編成은 三藏의 '1차적 分類[類 單位]'와 章疏의 敎學的의 의미의 '2차적 分類[綱 單位]', 그리고 「各 場所」의 배열은 저자연대순[著作年代順]의 '3차적 분류[目 單位]'가 단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6)</sup>

#### 4. 結 論

이상의 본론에서 「敎藏總錄」의 正體性 및 體系書誌的 分析을 시행하였다. 이제 본론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2장 「敎藏總錄」의 정체성에서는, 「大覺國師文集」 등 義天과 관련한 여러 記錄에 입각하여 「교장총록」이라는 목록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特性을 導出하여 봄으로써 이 目錄의 正體性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장총록」에는 '① 章疏의 正藏에 관한 補贖(連續)性 및 傳來性(保存性), ② 章疏收集의 持續性과 國際性 및 網羅性, ③ 章疏의 選別性 및 外護性, ④ 章疏 및 「교장총록」의 開放性 및 累加性(蓄積性), ⑤ 章疏의 歷史性 및 通時性, ⑥ 饒益衆生의 思想性(衆生救濟의 念願性), ⑦ 「교장총록」의 分類體系에 관한 義天 敎學觀(敎相判釋)의 根據性, ⑧ 諸宗教學의 兼學思想, ⑨ 諸宗教藏(續藏) 雕造의 完結性' 등등의 特性과 正體性이 溶解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제3장 「교장총록」의 체계서지적 분석에서는 이 目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교장총록」은 '海東有本見行錄 上·中·下' 3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 권에 大藏經 三藏의 經·律·論藏을 각각 편입함으로써 그 1차적인 分類인 '類' 단위의 分類를 실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교장총록」에서 2차적 분류라 할 수 있는 '綱' 단위의 분류에서는 각 經論의 代表書名을 活用하고, 각 經論 書名의 順序 設定은 '義天의 敎學觀', 즉 '의천이 파악한 諸敎相判

84) 吉藏(549-623): 중국 三論宗 再興의 始祖.

85) 天台智者: 智者(538-597): 중국 天台宗의 開祖.

86) 최애리(2006), 134.

釋의 綜合의인 見解의 逆順이라 할 수 있는 “‘圓融의 門’ ⇒ 終頓의 旨’ ⇒ ‘始敎의 宗’ ⇒ 其他의 經論 ⇒ ‘小乘의 說’”의 순서에 立脚한 해당 經論名의 群集別 配置에 의한 順序로 安排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賢首의 敎判’이나 ‘天台의 敎判’ 및 ‘諸 思想 및 信仰’別로 분석하여 보아도 그 분류체계의 수립과 관련한 해석이 논리적임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교장총록』의 분류체계에는 一定한 準則이 있고 論理的이고 合理的인 卓越性을 보임’을 立證하였다. ③ 『교장총록』에서 ‘目’ 단위의 분류라 할 수 있는 각 章疏의 配置 및 順序는, 각 章疏의 內容과 性格을 미리 파악한 후, 綱인 각 經論名(예컨대, 『華嚴經』) 아래에서 각 章疏를 配列하는데 있어서의 순서는 이른바 ‘敎學的인 解釋의 意味가 包括的으로 큰 順序로 列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 일반적인 예를 들면, ‘疏(註) - 記(義記) - 注 - 科(科文) - 論 - 章 - 其他’의 순서로 각 章疏들을 群集化하고, 각 群集된 章疏들 특징과 類似性에 따라 차례로 배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각각의 群集된 각 章疏群 內에서 장소 배열의 순서는 著作年代順에 입각하여 각각의 장소들을 차례로 排列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각 ‘章疏의 性格 및 內容에 따라 類似한 主題의 章疏別로 서로 密接시켜 群集化하는 특징’, 및 ‘예컨대, 章疏들을 同一主題(疏·記·科 등)로 群集化하면서, 해당 동일주제 內에서는 章疏의 著作年代順으로 羅列(密接)하고, 다시 지역별(中國僧의 章疏들과 新羅僧의 章疏들)로 隣接시키는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現代分類學에서 ‘分類란 類似한 主題끼리 密接시키는 것이다’, ‘分類表에 설정되지 않은 主題는 가장 가깝고 비슷한 주제와 함께 분류한다.’는 ‘분류의 정의 및 일반규정’에도 合致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요컨대 本考에서는, 『敎藏總錄』의 편성 및 그 분류체계의 수립은 ‘義天의 敎學觀’이라는 입각한 一定한 準則이 있고 論理的으로 편성된 卓越한 目錄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교장총록』에는 義天의 饒益衆生의 思想性和 諸宗教學의 兼學思想 등등의 特性和 正體性이 溶解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金富軾]. “[靈通寺 大覺國師 碑文].”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668-714.
- 智昇. 『開元釋敎錄』 卷第1. 『大正新修大藏經』 第55卷. 東京: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昭和52.
- 義天. “刊定成唯識論單科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5.

- 義天, “代世子集教藏發願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4.
- 義天, “新集圓宗文類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 義天, “與內侍文冠書.” 『大覺國師文集』 卷第13.
- 「宋高僧傳」 卷5, ‘智昇傳’.
- 戒環, 『中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사, 1996.
- 김두진, “義天의 天台宗과 宋·高麗 불교계와의 관계.” 『仁荷歷史學』 10(仁荷歷史學會, 2003).
-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12.
- 김성수, “教藏總錄 經部 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 第10輯(1983), 121-148.
- 김성수, “高麗續藏經目錄 編成의 사상적 배경.” 『인문과학논총』 제6집(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12), 215-235.
- 김성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著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7.7), 1-22.
-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刻板의 發願 場所 및 日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5-96.
- 김성수,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2011. 12), 7-63.
- 김성수, “의친,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체계성과 국제성.”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일시: 2013년 3월 28일(목) 오후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세미나룸, 주최: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33-56.
- 김성수, “義天, 諸宗教藏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55-89.
- 김성수,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 및 의친의 시대정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65-99.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大屋徳城 編, 『新編諸宗教藏總錄』 影印本 제1-3권, 東京: 便利堂, 昭和11(1936).
- 大屋徳城, 『高麗續藏經雕造考』, 東京: 便利堂, 昭和12(1937).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해안, 2011.
- 박용진, “고려시대 教藏의 간행과 流轉 및 그 의의.” 『初雕大藏經과 東亞細亞의 大藏經』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2.12.9.,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1층 회의실), 179-238.
- 서진수·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 이영자, 『법화·천태사상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 장애순(戒環), 『中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사, 1996.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